

작년 수출물량 증가폭 7년만에 최저

총 수출물량지수 136.09로 전년 대비 1.1%↑... 작년 12월 수출물량·금액은 두달째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물량 증가폭이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우리나라 총 수출물량지수는 136.09(2010=100기준)로 전년 대비 1.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9년 증가율(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대차 파업 등으로 수송장비 수출이 부진한 데다, 하반기 들어서 갤럭시 노트7 생산중단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10.2%), 정밀기기(10.0%), 전기 및 전자기기(2.4%) 등이 늘어난 반면, 일반기계(-5.1%), 섬유 및 가죽제품(-5.9%), 수송장비(-8.2%) 등이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화장품과 반도체 호조로 화학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이 늘어난 반면, 승용차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 수출금액지수는 109.36으로 전년 보다 5.4% 하락했다. 수출금액이 물량에 가격을 곱해 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금액지수 하락은 국제유가 하락 등 가격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수출 물량이 1.1% 늘었음에도 수출금액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저유가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출금액지수는 석탄 및 석유제품(-17.8%), 수송장비(-8.7%), 전기 및 전자기기(-6.2%), 일반기계(-6.1%) 등이 하락했고, 화학제품(1.8%), 정밀기기(4.2%)가 상승했다.



설 맞이 완구대전 24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아이와 엄마 고객이 완구대전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월 1일까지 '설 맞이 완구대전'을 진행, 각종 인기 완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지난해 수입물량도 2012년(0.5%) 이후 증가율이 가장 작았다.

지난해 수입물량지수는 120.59로 전년 대비 1.0% 올라 2012년(0.5%) 이후 최소폭으로 늘었다. 화학제품(3.0%), 석탄 및 석유제품(2.7%) 등이 상승했고, 일반기계(-5.8%), 정밀기기(-0.4%) 등이 감소했다.

지난해 총 수입금액지수는 94.99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다. 정밀기기(0.4%), 수송장비(1.4%) 등이 올랐고, 석탄 및 석유제품(-18.7%), 제1차금속제품(-9.5%) 등이 감소했다.

지난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2.1%

상승한 102.02를 나타냈다. 순상품교역지수는 수출상품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수출로 벌어들인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전년대비 3.2% 오른 138.84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물량지수는 14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 올라 2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정밀기기(23.5%), 전기 및 전자기기(5.7%), 일반기계(5.3%), 화학제품(4.3%) 등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및 석유제품

(11.9%), 제1차 금속제품(-3.2%) 등이 하락했다.

수출금액지수도 122.6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1%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섬유 및 가죽제품(-2.9%)만 제외하고 정밀기기(19.8%), 전기 및 전자기기(11.8%), 석탄 및 석유제품(14.0%)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와 수입금액지수도 2개월 연속 동반 상승세다.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130.65로 전년동기 대비 4.2% 올랐고, 수입금액지수는 107.17로 7.3% 상승했다. /뉴시스

'갤럭시S8' 뉴욕서 3월29일 공개행사 할 듯

출시일은 4월 중순 전망... OLED 디스플레이·AI 음성비서 기능 등 탑재

삼성전자가 단종된 '갤럭시노트'의 발화 원인을 최종적으로 규명함에 따라 차세대 모델인 갤럭시S8의 출시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3월29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S8 시리즈 언팩(공개) 행사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일은 4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갤럭시S7의 발화 원인을 '배터리 자체 결함'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갤럭시S7에 들

어간 삼성SDI와 중국 ATL의 배터리가 각각 다른 원인으로 발화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고통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IM)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갤럭시S8 발표는 MWC(모바일월드포럼그래스)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발화 문제) 값진 경험을 했다. 이를 갤럭시8에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갤럭시8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MWC)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가 전작 갤럭시S7 시리즈, S5, S6 등을 지난 3년 동안 MWC에서 공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품 출시일을 4월 중순으로 잡은 만큼 오는 2월27일 개막하는 MWC에서의 신제품 공개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언팩 행사가 진행될 장소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S7을 미국 뉴욕 맨해튼의 링컨센터에서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8 양산을 위해 부품 업체들에게 오는 2월부터 부품 조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삼성은 1월에 갤럭시7 원인 규명을 발표한 뒤, 2월 부품 조달, 3월 양산, 4월 공식 출시라는 계획을 세운 셈이다.

현재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은 큰 약재를 털고 난 후에 갤럭시8 공개와 출시를 진행한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한편 갤럭시8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7 시리즈처럼 물리적 홈버튼도 없어지게 된다. 지문인식 기능은 핸드폰 뒷면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빅스비(Bixby)'라는 인공지능(AI) 음성비서 기능이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8 양산을 위해 부품 업체들에게 오는 2월부터 부품 조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삼성은 1월에 갤럭시7 원인 규명을 발표한 뒤, 2월 부품 조달, 3월 양산, 4월 공식 출시라는 계획을 세운 셈이다. /뉴시스

보험금 수령 "안내 문자 보내야"

'알림 서비스' 4월까지 개선... 만기 후에도 매년 안내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때 타지 못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의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만기시점과 적용금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4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만기 보험금 안내는 기존의 우편 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개선한다.

현재는 대다수 보험사가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 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 지급 보험금을 안내했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보험금을 받기 전까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도 안내 내용에 추가했다.

'계좌 사전 등록제' 안내도 강화한다. 계좌 사전 등록제란 만기나 휴면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는 제도다.

계약체결단계에서 보험모집인이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등이 안내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게 세부내역은 문자 메시지로 추가 안내한다.

특히 보험사 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록 담당자가 등록요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실질환 등 민감한 질병을 등록할 때에는 재확인토록 주의환기용 팝업창을 개발했다.

채무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된 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 시 지급액 및 지급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제도 관련 사항 안내도 손질했다. 소비지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비용부담 주체, 손해사정사 미선임시 보험사의 손해사정 진행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명시했다. /뉴시스

LG전자, 車부품 국제표준 SW개발 참여

국제표준단체 '오토사' 프리미엄 파트너 가입 승인 받아

LG전자가 국내 IT업계 최초로 자동차 부품 국제 표준소프트웨어 공동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제 표준 단체 '오토사(AUTOSAR11)' 프리미엄 파트너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오토사의 프리미엄 파트너 중 한국 기관 및 기업은 LG전자, ETRI, 현대자동차 등 단 세 곳이며, 이 중 LG전자가 유일한 IT기업이다.

자동차가 IT기기화됨에 따라 한 대의 자동차에 달게는 100여 개의 전자 부품이 탑재된다. 각각의 전자부품은 1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장착하며, 개별 프로세서마다 OS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오토사는 이처럼 다양한 자동차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코어·프리미엄·디벨롭먼트·어스시

에이트 네 등급의 파트너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오토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코어 파트너로는 BMW, GM, 도요타, 폭스바겐, 보쉬 등 9개 완성차 및 부품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오토사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준수하고 있다.

이번에 LG전자가 참여하는 차상위 등급 프리미엄 파트너는 코어파트너사와 함께 오토사의 규격 제정에 직접 참여하며, 표준 소프트웨어가 공식 배포되기 전부터 사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티어1(Tier 1, 1차 공급자)로서 기술력과 안정성 등 LG전자의 자동차 부품업체인에서의 입지를 인정받은 결과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으로서 'webOS'를 개발해 주요 제품에 적용하는 등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뉴시스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